

북한사회의 현 실태 조사보고에 대한 토론

박충권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재료공학전공)

발표에 따르면 본 보고서가 2011년 하반기 북한 정세동향을 분석하고 2012년의 북한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겠지만 혹시 2011년 하반기 북한 정세동향이 2012년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 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즉 2011년의 정세동향 분석에 기초해서 2012년을 전망하는 것이 얼마만한 타당성이 있는지 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1년 하반기부터 자신들의 강성대국 국가 건설이 실패했음을 인정(강성대국 → 강성국가로의 용어 바꾸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북한주민들로부터 회피하고 민심을 다스리고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진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벤트들 중의 하나로 “오늘을 추억하리”라는 연극을 통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 대비 현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인식시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의 완전한 실패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는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논리임.)과 함께 강성국가 건설에서 나타나고 있는 침체현상이 외부의 적(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세력: 북한 식 표현)과 내부의 적(당과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일부 부패하고 개혁적 성향의 간부들과 회의적인 사람들)의 존재 때문인 것으로 민심을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본 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르면 연극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과거 대비 현실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이 원하는 선전, 선동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함남의 불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북한 주민들 속에 긴장상태를 조성하여 다른 생각을 할 여유를 주지 않음과 동시에 북한 지도부가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노력 또한 많이 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열의를 북돋아 경제건설을 추진하려는 목적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북한 지도부가 과거 대비 민심에 훨씬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민심 잡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폐쇄적인 북한으로서는 작지만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민심 잡기와 주

민들 통제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북한으로서는 더 더욱 외부의 원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곧 오리라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보고서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최첨단 돌파전”, “CNC 기술”, “지식경제형강국”이라는 용어들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의 향후 발전 방향을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살리기로 정하고,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이벤트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그러한 정책의 성공여부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애매한 표현들로 앞날의 현 정책의 실패를 대비해 회피해갈 길을 열어놓은 것은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데 이는 북한 지도부의 자신감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려면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있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또한 북한이 추구하는 지식경제형강국, 최첨단 돌파 모두 지금과 같은 북한의 폐쇄적인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은 외부와의 과학기술교류, 정보, 기술의 공유 등이 없이는 혼자서 도저히 이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아는 북한 지도부라면 무엇을 믿고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었을까요? 한번 분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를 테면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지식경제형강국 건설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즉 과학기술 원조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북한과의 과학기술 교류, 학술회의 공동개최, 더 나아가 북한의 유학생들, 연구생들의 연수프로그램도 진행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를 통한 인적 교류는 앞으로의 통일 후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차이, 문화적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을 줄이는 일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되는 일일 것이고, 또 북한의 개혁, 개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과학기술원조에 원활한 인적 교류라는 적절한 정책연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연계가 잘 진행만 된다면 이지원씨께서 발표하신 인적 교류의 효과 또한 원활한 쌍방향 교류를 통해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남북한 구성원들의 통합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써의 통일 또한 빠른 진척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2011년 하반기 북한 주민생활 동향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한이 완벽한 주민통제를 위해 단행한 화폐개혁이 실패한 상황에서 시장 통제도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물가상승을 비롯한 화폐개혁과 강성국가 건설의 실패로 인한 부작용들을 다스리기 위해 주민통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실례들로 국경지역으로의 이동통제 강화, 탈북자 엄중 단속, 한류 확산 금지

등 통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이러한 통제와 처벌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보완하기 위해 또다시 광폭정치,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는 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이 북한 지도부에 있어서 체제 수호를 위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시기에 민심을 바로 잡고 권력기반을 튼튼히 하느냐 못하느냐에 북한 체제의 존망이 달려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체제 유지를 위해 에너지가 많이 필요 되는 시기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북한은 외부의 원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중국이라는 든든한 지지자가 북한체제의 목숨을 연명시키고 있고 그 대가로 북한을 경제적,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북한은 울며 겨자 먹기로 국가의 소중한 자원을 중국에 팔아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와 같은 적절한 시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 북한으로부터 중국으로의 자원유출을 막고 하루빨리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나아가서 조국통일의 대업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통일은 남과 북의 의지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국들, 유엔 등과의 광범위하고 활동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문제 또한 잘 해결이 되어야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저의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